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행 8:26-40)

코로나와 더운 여름에도 땀흘려 일하는 농부처럼 영혼구원의 열매를 바라며 힘쓰고
계실 여러분께 주님 이름으로 문안인사드립니다. 주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일본 시즈오카 영광그리스도교회의 선교소식을
나눕니다.

1.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고 태어난 성도들이 잘 성장하여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말씀먹기, 소화, 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때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1년전에 저희 교회에 출석중인 정신장애가 있는 한 청년성도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1년에 매일 아침 30분, 저녁 30분씩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 40독을 해왔는데, 그래도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 통합실조증과
발달장애가 있어서 이해력부족으로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 청년의 심령이
목말라하고 있고, 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는게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조명이 절대 필요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신약성경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도행전시대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더 그랬겠고, 신앙성경이 있는 지금도 많이
읽는다고 아는게 아니라 빌립집사같은 안내자, 지도자, 성경교사가 필요하니 선교사인
제가 잘 감당해야겠다고 새삼 다짐해봅니다. 특히 유일신보다는 다신개념에 젖어있는
일본같은 선교지에서는 성경을 통해 유일한 참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다신중의 한 신으로 잘못 받아들이거나 다신풍토속에서도 성경의 영향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선포하고 가르쳐서 말씀읽기와 큐티에 도움이

되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후에 교독으로 성경읽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 성도들은 디모데처럼 어릴때부터 성경에 익숙해지도록, 성년성도들도 사는 날 동안 성경에 더 친밀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아마인 직원인 훗다 야스오상, 모로사와 케이꼬상이 구원받도록, 유아마인 이용자들이 구원받도록, 특히 고바야시 에미상, 요네구라 미호상, 사이또 야야꼬상, 쓰끼지 겐이치상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올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은 니시와끼 토모오형제의 어머니 스미꼬상은 87세로 두 눈이 거의 안보이는 상태에서도 통합실조증이 있는 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덕분에 스미꼬상이 성경 CD 를 듣고 마음문을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중단했던 피아노와 성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약속하신 건축헌금도 매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미꼬상이 시력장애와 신경과민으로 인해 최근에 환각증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예수믿고 구원받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또한 시력과 신경이 더 악화되지 않고 성령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3. 장남 동민이(90년생)는 서울대 경제학과박사과정 졸업을 당초 8 월목표에서 내년 2월 목표로 수정하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결을 떠나 있으면서 힘든 논문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지만,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니 친히 부족함을 채워주실줄 믿습니다. 논문을 순조롭게 완성하여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그후의 취직과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부탁합니다.

장녀 이슬이(95년생)는 동경에서 회사다니며 간호사소명에 잘 준비하여, 계획하는 전문학교와 간호사시험등에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막내딸 살로메(99년생)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잘 다니고 있는데,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기마음대로 안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을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살로메를 잘 이해할수 있는 스텝을 붙여주셔서 살로메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아내 김희숙선교사가 장애인사역과 교회사역으로 지칠 때가 있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받아 쓰임받도록 기도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주인되시는 예수님께서서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주시는 주님의 교회들과 목사님, 성도분들께 많은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